

대한산업의학회의 활동목표와 역할

대한산업의학회장 윤 임 중

**“산업의학 전문의제도는
산업장의 수많은 근로자를 비롯한
현 우리사회가 시급히 요구하는
문제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으며
이 제도를 관철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

壬申年을 보내고 癸酉年의 새해를 맞이하여 산업보건사업에 열중하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창립된지 만 30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협회와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에게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앞날에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동안에 산업보건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와 대한산업의학회가 공동으로 노동부의 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서 기존에 있던 직업병의 관리기준과 진단방법을 대폭적으로 개정, 보완하였고 우리사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이황화탄소를 비롯한 6가지의 직업병에 대한 인정기준의 개정 및 설정연구를 이룩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업보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이었기에 관계자 여러분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직접 연구에 참여하고 공청회등을 통한 많은 노력에 의하여 마무리 지어진 점에 대하여 이 사업에 참가하였던 한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정부에서는 금년에 중요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보건관리 지원사업을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학술대회와 학회지를
더욱 발전시켜 내실을 기하고, 산업의학계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연수와 각종 장학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젊은층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혀주는 역할을 할 것”**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 학회에서 수행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건사업의 중요성과 문제점은 잘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조차도 아직도 그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래에 와서 보건관리대행사업을 통하여 일부 시도되고 있는 정도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본 사업은 매우 뜻이 있다고 보며 우리는 이 사업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향후에도 산업보건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산업전선에서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증진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보건학계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의 공동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한산업의학회는 1988년에 창립되어 현재 5년째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가 해야 될 국내 및 국제적인 학술활동과 산업보건사업이 산적하여 있지만, 지난 한해동안에는 창립 초창기부터 시도되어 온 산업의학 전문의제도의 관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아직도 결실을 보고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비단 대한산업의학회뿐 아니라 산업장의 수많은 근로자를 비롯한 현 우리사회가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올해에는 이 제도를 관철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산업의학 수련의를 위한 교육제도의 제정 등과 같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뒤따르게 마련이며 이를 위하여 많은 분들의 협력이 요청되는 바입니다.

대한산업의학회의 향후 발전을 위하여 국내 학술대회와 학회지를 더욱 발전시켜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노동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학계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해외연수 등 각종 장학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여 젊은 층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혀 주는 것도 하나의 향후 목표라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대개 그러하지만 특히 학문은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올 한해에 대단한 업적을 해낼 수 있다고는 물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업의학의 각 분야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 처럼 꾸준히 연구하고 협조하면서 일을 하면 올 계유년도 보람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